

NAR 보고서 계속되는 집값 인상 CA, 가장 비싼 상위 10개 중 5개 보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최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된 183개 시장 중 대도시의 67%가 전 분기의 78%와 비교하여 두 자릿수 가격 상승에 도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독 주택 중간값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한 361,700달러로 전 분기(15.9%)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모든 지역이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을 달성한 반면, 4분기에는 남부에서만 두 자릿수 가격 상승(17.9%)을 경험했으며 북동부(6.8%), 중서부(8.6%), 서부(7.7%).

4분기에 가장 비싼 상위 10개 시장은 가격 급등을 목격했으며 그 중 9개 시장은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San Jose-Sunnyvale-Sta를 포함하여 5개 대도시가 상위 10위 안에 들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클라라(\$1,675,000, 19.6%);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헤이워드(\$1,310,000, 14.9%); 및 Anaheim-Santa Ana-Irvine, CA(\$1,150,000, 23%);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칼스배드(\$845,000, 14.2%); 로스앤젤레스-롱비치-글렌데일, 캘리포니아(\$797,900, 15.9%).



1년 내내 치솟는 주거비가 문제였으나, 4분기에는 1년 전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악화됐다.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기지 이자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이 537,400달러에서 167만 5000달러 사이인 20개 시장에서 가족은 10% 다운 페이먼트 모기지를 감당하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이전 분기의 17개 시장).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지하철은 San Jose-Sunnyvale-Santa Clara, San Francisco-Oakland-Hayward, Anaheim-Santa Ana-Irvine, San Diego-Carlsbad 및 Los Angeles-Long Beach-Glendale에서 발견되었습니다.